

# 父母의 離婚이 子女生活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研究

友石女子大學 黃 玉 子  
家政學科 專任講師

## 《目 次》

### I. 緒 論

#### II. 理論的 背景

1. 離婚과 親權問題
2. 父母의 離婚이 子女에 미치는 影響

#### III. 研究方法 및 節次

### IV. 研究結果 및 解釋

#### V. 結論 및 提言

參考文獻

Abstract

## I. 緒 論

父母와 子女의 關係는 최초의 人間關係이며 兒童의 心身의 發達 특히 人格의 形成을 크게 左右하게 된다.

人間의 心理的인 發達에 있어서 初期年令의 경험이 중요하고 또 父母와의 相互作用을 통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Erikson(1950)<sup>1)</sup>, Mussen(1969)<sup>2)</sup> 등 외에도 心理學者와 教育學者들 之間에 널리 公同된 見解로써 인정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오늘날 급변하는 산업화로 인해서 야기되는 人間性의 喪失, 個性의 弱化, 道德性의 欠如는 가족형태에도 影響을 미치므로써 가족기능을 약화시키고 이혼율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이혼율은 해방당시에 비해 3배로 늘어나고 있는데, 1967년에는 하루 평균 40件的 離婚에 비해, 1977년에는 하루 평균 81件的 이혼을 보여주고 있음이 그 예이다.<sup>3)</sup>

初期經驗의 重要성과 父母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經驗을 그 근본으로 하고 있는 兒童에게 이와 같은 父母의 이혼은 그들이 당하는 諸般事에 어떠한 影響을 미칠 것이며 혹은 어떠한 副作用을 야기시킬것 이라는 추측을 자아낼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離婚家庭兒童의 成長發達過程에서 生活問題를 다루는 것은 離婚者의 子女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眞實의 眞實이 되기위함이며,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意義를 둔다.

## II. 理論的 背景

### 1. 離婚과 親權問題

親權이란 父母가 공동으로 또는 그 한면이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身上·財產上의 監督, 保護, 教育을 內容으로 하는 權利, 義務의 총칭이다.<sup>4)</sup>

子女가 父母의 이혼으로 인하여 父母中 一方과만 生活을 해야될 처지에 놓이면은 親權

1) E.K. Erikson, *Child and Society*, N.Y: Norton, 1950, p. 249.

2) P.H. Mussen, J. Conger & J. Kagan,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Y: Harper & Row, 1969, p. 367.

3) 韓國의 離婚率研究, 가정주당보도, 10호, 1979. 9. 15.

4) 정인승의 6人, 「한국어대사전」, 서울 현문사, 1976, p. 1633.

者 및 養育者 결정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親權者 결정은 子女의 生活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는 길이 되므로 子女의 立場을 충분히 고려하여 實行되어야 한다.

현재 각 나라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親權 및 養育權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영국은 父에게 친권의 우선을 부여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급속한 사회변화와 남녀평등의 실현으로 父母가 共同으로 친권을 행사하게 되었고, 동시에 子의 福利增進과 最善의 利益이라는 면이 강조되었다.<sup>5)</sup>

② 미국은 이혼후 子女의 친권 및 양육권의 결정을 子의 最善의 利益이라는 어린이 福祉中心으로 행하고 있으며, 부부간의 협정하에 이루어진다. 만일 협정이 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 청구하여 養育者 指定을 결정짓는다.<sup>6)</sup>

③ 서독은 1957年 男女同權法에서 친권은 父母에게 共同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獨民1626조), 兩親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父가 決定하도록 하되 父는 母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獨民1628조)고 規定하고 있었다.<sup>7)</sup>

1977년 7월 1日 獨民 제1671조는<sup>8)</sup> 父母가 이혼한 후의 친권행사에 관한 改正으로 子女의 福祉만이 친권자 결정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있다.

④ 프랑스에서는 이혼법이 1975년에 改正을 보았으며(民法典 제617호 1975.7.11.) 民法373條의 2에서는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중의 친권은

그 부모중에서 法院이 子女의 監護를 위탁한 부모 한편이 행사한다. 다만 父母中 다른 一方의 방문 및 감독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sup>9)</sup>

⑤ 스위스는 父母가 이혼한 경우 친권은 子의 양육을 담당할 배우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民法 274條3項).

따라서, 스위스 民法은 父母共同 親權行使主義를 취하고 있으며, 「子의 福利增進과 最善의 利益」을 위하여 親權을 부여하고 있다.<sup>10)</sup>

⑥ 일본은 이혼에 의한 子女의 친권 결정을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즉 協議離婚(日·民 819條1項)과 裁判上離婚(日·民819條2項6項)에 따른 것이다.<sup>11)</sup> 그러나 친권문제는 「子女의 福祉와 利益」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⑦ 한국의 親權法은 “父母가 이혼을 하거나 父의 사망후 母가 親家에 復籍하거나 재혼한 때에는 그 母는 前婚中에 出生한 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므로써(民法 909條5項), 母가 실제로 子女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子女와 동거하지도 않는 父가 친권자가 되는 것은 전혀 실정에 맞지 않게 된다.<sup>12)</sup> 한편 양육에 관한 한국민법은 “이혼후의 父母의 협정에 의하여 협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양육책임을 父에게 준다(獨民 837條1項)”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3)</sup>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 이혼부모가 子女의 양육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傳來되는 사항을 이태영(1969)<sup>14)</sup>은 ① 男系血統中心

5) 한봉희, 이혼후의 子에 대한 친권문제, 「사법행정」, 1977. 10월호(통권80호) pp. 116~117.

6) Homer H. Clark, *The law of Domestic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ST. Paul Minn, west publishing Co. 1968, pp. 576~577.

7) 김주수, 「가족계획 사업을 담진하기 위한 가족법 개정에 관한 연구」, 가족계획 연구원, 1974, pp. 101~106.

8) 宮井忠夫, 서독일가족법의 개정에 관하여, 「ジュリスト」, 일본 동경:유비각, 1977, pp. 127~135.

9) 稻本洋之助譯, 「프랑스民法典」, 日本東京:法曹會, 1978, pp. 149~150.

10) 한봉희, 前揭論文, 1977, p. 128.

11) 我妻 榮, 「親族法」, 일본동경:유비각, 1961, pp. 136~187.

12) 한봉희, 개정민법의 제문제, 「전북대학교 논문집」 제21집, 1979, 7월 pp. 125~126

13) 김주수, 「친족·상속법」, 서울:법문사, 1980, pp. 248~250.

14) 이태영, 「한국이혼연구」, 이태출판부, 1969, p. 244.

主義의 家制度下에 전래된 인습에 의하면 子女는 父에 속하며 ② 母는 경제적 무능력자이므로 감히 자녀의 양육을 自擔하겠노라 自誦하지 못하고 ③ 再婚하려는 者에게는 子女가 지장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같은 사항은 1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별로 다를 바 없이 실행되는 실정이고 보면, 위의 그릇된 인습을 벗어나서 子女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子女養育을 귀중한 의무인 것으로 인식할 때 보다 좋은 조건을 가진 者를 養育者로 指定하여야 함은 당연한 처사라 하겠으며, 親權에 관한 규정도 「어린이의 福祉와 最善의 利益」을 중심으로 결정하는 外國의 立法例에 따라서 우리나라 民法이 改正될 때, 아동의 生活은 밝고도 바람직한 成長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2. 父母의 離婚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

1) 子女의 生活變化 부모를 떠난 아동은 들을 떠난 고기와 같다"라는 속담이 있다.

오늘날 부모의 離婚으로 인한 가정붕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한 전문가의 推算에 따르면 80%의 아동이 事前 예고없이 부모의 離婚을 맞게 되며, 이에 따라 子女는 生活에 혼란과 충격, 절망, 분노를 느끼고 자존심을 다치게 되며, 13세 이하의 子女는 그 이혼이 곧 자기의 탓이라고 느낀다<sup>15)</sup>고 한다.

家庭破綻後에도 가족은 偏親과 子女로 구성되는 새로운 家族構造로 존속하게 된다.

그러나 때로는 子女를 친척집이나, 양자로 보내며, 혹은 施設에 보내어 저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사는 변화를 당하게도 된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에 수반되는 子女의 生活變化

는 家庭과 社會에 큰 문제로 간주되고 있으며 子女의 生活에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 2). 子女의 연령에 따른 離婚의 衝擊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子女들이 받는 영향은 그 정도나 종류에 각각 차이가 있다.

J.S. wallerstein(1975)은 가정의 붕괴가 일어났을 때 아동들의 반응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동의 연령이다.<sup>16)</sup>고 했으며 Santrock(1972)등<sup>17)</sup>은 "離別時期의 연령을 學齡前(0~5세), 潛在期(6~12세) 靑少年期(13~18세)로 분류했고 子女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는 나이를 學齡前의 兒童이라고 지적했다. 이때 2세 미만의 아동은 무슨일이 일어날지들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상처는 덜 받는다.<sup>18)</sup>고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McCord(1962)<sup>19)</sup>등이 있으며 "부모의 이혼은 아동의 社會的, 認知行動에 부정적인 단기효과를 미친다"고 덧붙였다.

Francke등은 부모의 이혼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sup>20)</sup>

1. 2~5세의 幼兒는 발육의 퇴행, 의존적, 대소변 못가리기, 다른 性의 부모가 떠나므로 오는 性的發達의 영향과 같은 性의 부모에게 경쟁을 느끼므로써 그 부모가 실제로 떠난다면 자기탓이라는 생각을 한다.

2. 6~8세의 아동도 부모의 이혼이 자기탓이라고 책임을 느끼며, 버려질까봐 두려워하고, 餓死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낀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연령층이 가장 위험하며 충격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3. 8~12세의 아동은 이혼을 제의했다고 생각되는 부모에게 분노를 느끼며 학교에서 폭

15) L.B. Francke et al, 「The Children of Divorce,」 *Newsweek*, 1980, 2.11, pp. 50~55.

16) M. Hunt & B. Hunt, *The Divorce Experience*, N.Y.: McGraw-Hill Book Co., 1977, pp. 168~190.

17) J.W. Santrock, *Relation of type and Onset of father absence to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1972, 46, pp. 455~469.

18) M. Hunt & B. Hunt, 前掲書.

19) McCord et al, 「Some effects of Paternal absence on male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62, 64, pp.361~369.

20) L.B. Francke et al, 前掲刊.

발 할때는 친구에게 멀어질 수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子女의 연령에 따른 이혼의 영향은 각각 相異하게 나타나며, 특히 兒童初期에 그 영향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 3). 父離別과 子女의 問題

父母의 이혼으로 자녀는 그의 意思와는 무관하게 父母중 一方과 동거하게 된다.

미국에서 조사 발표된 한 例로써 이혼후 90%이상의 경우가 아버지와 헤어지고 어머니와 살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sup>21)</sup> 바로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어머니의 중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동한히 다루어지고 있던 父-子女關係도 兒童의 成長發達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는<sup>22)</sup> 연구에 초점이 되고 있다.

父離別은 크게 두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하나는 死亡에 의해서이며, 또 하나는 離婚이다 이혼과 사망으로 인한 부이별은 行動上의 問題와 精神醫學的 증세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중 이혼가정의 자녀들은 보다 공격적이고 반사회적 행동을 보였으며, 특히 女兒는 性的行動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었다고 한다.<sup>23)</sup>

Neubauer(1960)<sup>24)</sup>는 “부이별은 Oedipal Period에 처음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며 男兒에게는 同一視의 결핍으로 인한 性問題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Biller(1969)<sup>25)</sup>도 “부이별이 子女의 性的인 문제와 학교 성적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Pedersen(1966), Rea(1968), Santrock(1972)등이 있다.

이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父離別은 子女의 性的인 문제를 야기시키며, 학교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공통점을 보이고 있고, 同一視 對象喪失<sup>26)</sup>로 인한 超自我發達에 장애를 초래하므로써 反社會的 行動과 攻擊的인 態度를 보인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같은 父離別의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는 방안으로써 장병림(1965)<sup>27)</sup>은 “아버지가 없을 때 어머니가 곤란에 잘 견디어 내고 감정적으로 동요함이 없이 母親과 父親의 役割을 잘 조화시킨다면 아동은 도리어 협력적이 되며 애정적이 될 뿐더러 자체력도 갖출 수 있다”고 하므로써, 부이별 자체로서만 문제가 있다는것 보다는 母의 자녀에 대한 태도가 더욱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 4). 母離別과 子女의 問題

人間은 어린시절을 獨立해서 살수 없으므로 부모로부터 성인으로서 독립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진다. 특히 어머니의 養育方法, 養育態度, 人性등은 兒童의 發達過程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母의 役割이야말로 子女의 發達面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따라서 子女가 한 人間으로 독립되기 전까지 母와의 相互作用은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때, 母가 없다는 사실 그 자체는 肯定的인 면이든간에 子女가 母의 영향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子女는 자칫 母性失調現象을 수반하기 쉽다.

Yarrow(1961)<sup>28)</sup>는 母性失調에 대하여 연구한 학자로서 母性失調란 母性養育의 逸脫狀態라고 定義했다. 그리고 초기아동시기의 母性

21) George Levinger & O.C. Moles, *Divorce and Separation*, N.Y.: Basic Books, Inc., Publ. 1979, pp.273~306.

22) 서봉연, 子女에 대한 부친의 영향, 『李義喆博士華甲紀念論叢』 서울: 공신문화사, 1973, p. 45

23) G. Levinger & O.C. Moles, 前掲書

24) P.B. Neubauer, 『The One-Parent Child and his Oedipal Development』, *Psychoanal study of the Child*, 1960, 15, pp. 286~309

25) H.B. Biller, *Father absence maternal encouragement and sex role development in Kindergarten age boys* *Child Develop.*, 1969, 40, pp. 539~546.

26) 曹大京譯, 『정신분석학』, 서울: 현대교육 출판사, 1977, p. 54

27) 장병림, 『아동심리학』, 서울: 법문사, 1965, p. 297

28) L.J. Yarrow, 『Maternal Dep4ivation: toward an emprirical and Conceptual re-evaluation』, *Psychol. Bull.*, 1961, 58, pp. 459~490

養育의 逸脫은 知的, 人性的, 社會的機能의 장애를 유발하는 原因의 이 아닌 現象의 概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Spitz(1946)<sup>29)</sup> 등은 한살미만의 어린이가 어머니의 보호와 사랑을 박탈당했을 때 心身發育이 부진하고 질병을 많이 앓으며 때로는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있음을 관찰하였고, Bowlby(1965)<sup>30)</sup> 도 “초기어린시절에 어머니의 보살핌을 빼앗긴 결과 후속되는 性格發達과 精神健康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며, 5세이후의 母離別은 아동에게 영향을 덜 미친다”고 밝혔다.

이상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초기아동에게 모이별은 人性發達과 精神健康에 장애를 주고 아동후기로 갈수록 영향을 덜 미친다는데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Hilgard(1960) 등은 母離別에 관한 궁극적인 문제는, 유사한 충격에도 어떻게 견디어 내느냐 하는 개개인의 반응의 정도가 더욱 문제라고 밝혔다.<sup>31)</sup> 이른바 母離別에 대한 영향은, 이별을 경험하는 아동의 個人差에 따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5). 再婚父母·偏父母와 子女의 問題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父離別과 母離別만을 가지고 다루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親父·母와는 이별이라 할지라도 繼父나 繼母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감독과 통제를 확고하게 할 때 否定的 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고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어디까지나 論理에 치우쳐 있어 실제 조사결과에서는 이와는 모순된 보고를 하고 있다.

McCord<sup>32)</sup> 등은 破綻된 家庭의 자녀들로서 代理父나 母와 동거하고 있는 자녀의 상당수의 비율이 代理父母가 없는 가정의 자녀에 비해서 不良的 參照集團(reference groups)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실제로 범죄자가 된 자녀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Rosenberg는 “偏母와 동거하는 子女에 비해서 繼父와 동거하는 子女들이 훨씬 자존심이 낮았으며 心因性疾患이 많았다”<sup>33)</sup> 고 했다.

한편 偏母들은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녀에게도 정신적 부담을 안겨주게 되며, 母親은 남편에게 주어야 할 애정을 자녀에게 전이하기 때문에 母親自身の 애정욕구로 인한 과잉보호가 되기 쉽다. 그러나 母親의 태도가 지배적으로 되었을 때는 그 결과 自信不足, 受動的 態度, 內向性 性格이 될 수가 있다.<sup>34)</sup>

池川清(1961)<sup>35)</sup> 은 偏母와 살고 있는 兒童은 心理的인 안정감을 있어도 感情的 不成熟 상태에 빠지기 쉽고, 母親과만 결속되어 훗날 독자적 인간이 못되고, 他的 의지를 바라게 되기 쉽다고 우려한 바 있다.

I.R. Stuart도 “偏母와 살고 있는 兒童은 공포감이 있으며 偏親이 자신을 잘 키울수 있을 까 하는 불안을 느낀다”<sup>36)</sup> 고 했으며, 偏母가 아무리 잘해주어도 兩親에게서 보호되는 것 보다는 못하다는 不安이 자칫 편친을 비난하기에 이르기도 한다.<sup>37)</sup> 고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본 바와같이 偏親과 再婚父母는 각각 특징적인 영향을 子女에게 미치고 있다. 그러나 再婚父母이나 偏父母이나를 따지기 전에 子女에게 중요한 것은 父母로서

29) R.A. Spitz & K. Wolf, 『Anaclitic Depression』, *Psychoanal study of the child*, 1946, 2, pp. 313~342.

30) J. Bowlby, *Child Care and the Growth of Love*, Harmondsworth: Penguin Book Inc., 1965, pp. 11~28.

31) L.J. Yarrow, 前掲書.

32) McCord et al, 前掲書, pp. 361~369.

33) G. Levinger & O.C. Moles, 前掲書.

34) 服部廣子·久米稔, 『離婚·別居の家庭と子供』, 일본동경: 가정교육사, 1972, pp. 211~232.

35) 池川清, 『母子福祉』, 日本生命濟生會刊, 1961, pp. 279~286.

36) 服部廣子·久米稔, 前掲書.

37) M. Hunt & B. Hunt, 前掲書, p. 172.

의 態度이며 子女의 關係형성이 어떠하냐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先行研究들이 부모의 이혼은 子女에게 부정적 影響을 주므로써 深大한 타격을 받는 불행의 출발처럼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의 社會構造나 福祉施設로 보아도 비관론적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아직도 常存하는 家族制度나 이에 수반되는 意識構造로 보아 비관론적 결론만을 지적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 우선 이혼이 子女에게 미치는 諸事實을 究明하여 정리하므로써 문제해결의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다음의 조사연구를 시도하였던 것이다.

### Ⅲ. 研究方法 및 節次

본 연구는 父母가 離婚한 兒童과 正常家庭 兒童의 日常生活 問題의 差異를 領域別로 비교 고찰 함을 주된 문제로 삼고 있다.

본 연구에서 「離婚家庭兒」란 父母가 離婚을 한지 1년이상된 아동으로서 이혼후에 偏親과 同居하거나 父母의 再婚으로 인하여 繼父 혹은 繼母와 同居하는 子女를 말하며 「正常家庭兒」란 결혼한 父母와 동거하는 원만한 가정의 子女를 말한다.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離婚家庭兒 60명, 正常家庭兒 77명이며 이들은 예비조사 대상자 3,975명에서 抽出된 兒童이다.

이들은 서울의 3개 국민학교와 전주에 있는 4개 국민학교의 4,5,6학년인 9~13세의 연령범위에 속하는 兒童이며 正常家庭兒는 離婚家庭兒를 추출한 학급에서 숫자와 성별과 同一하게 無選擇集 하였다.

#### 2. 측정도구 및 자료처리

1) 연구대상 분류자료 : 본 연구목적에 맞는 연구대상을 抽出하기 위한 豫備調査紙로써 그 내용은 아동의 姓名, 性別, 生年月日, 부모의 生存과 同居與否, 離別形態, 離別當時의 아동의 연령, 繼父·母의 存在與否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2) 아동의 일상생활문제 조사척도 : 이 척도는 C. Longfellow(1979)<sup>38)</sup>의 부모의 이혼이 아동에게 주는 영향에서 제기된 生活上의 問題들인 情緒의 反應, 學業關係, 友人關係, 兒童의 認知的 發達에 관한 문제와 Stuart<sup>39)</sup>의 이혼후 편친밀에서 키운 子女의 生活上 適應에 주된 연구문제로써 아동의 家族間의 問題, 個人的 適應問題, 學業問題, 社會問題등에서 抽出하여 본 질문지에 5개 領域으로 선택했으며, 領域別 問項은 學者들의 理論을 참고로 해서 아동의 日常生活에서 주로 겪는 문제를 42문항의 적합한 형태로 제작한 것으로 下位 領域을 보면 ① 家庭生活(Home Life) ② 情緒의 問題(Emotional Problem) ③ 學校生活(School Life) ④ 友人關係(Peer-relationships) ⑤ 其他社會生活(miscellaneous Social Life)로 구성되었다.

아동의 生活에서 느끼고 행동하는 점이 반응된 질문지는 全42問項에 대한 백분율(%)을 구하고, 비교 집단간의 백분율의 차이를 檢證하여 正常과 離婚家庭兒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生活問題의 5개 領域은 平均(M)과 標準偏差(SD)를 구하고 비교 집단간의 平均 差를 t檢證함으로써 差異를 살펴보았다.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② 離婚家庭兒中에서 4.5.6학년의 연령범위로 한정되었으므로, 對象者 대부분이 표면상

38) George Levinger & O.C. Moles, 前掲書, pp. 287~288.

39) 服部廣子·久米稔共譯, 前掲書, pp. 29~34.

으로 밝히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농후하여서 抽出하는데 곤란점이 많았고, 따라서 표집수가 적다.

② 離婚家庭兒의 사례수가 少數여서, 가정 환경과 이혼시기에 따른 父離別과 母離別 및 偏親과 再婚家庭兒의 性別에 관한 비교는 하지 못했다.

③ 繼父나 繼母 또는 기타친척과의 동거에 따른 비교는 對象兒童이 少數여서 불가능하였다.

#### IV. 研究結果 및 解釋

본 연구를 위하여 설정된 各 문제에 대한

자료들을 調査分析하고 解釋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日常生活에 관한 領域別 비교를 <표 1>에서 보면, 正常과 離婚家庭兒사이에서 學校生活에 5%수준의 有意한 差異를 보임으로써, 離婚家庭兒가 學校生活에 더 심각하다. 한편 正常家庭兒는 有意한 差異는 아니나 情緒問題가 높은 平均을 보였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離婚家庭兒中에는 偏親과 살고있는 兒童 즉 偏親家庭兒가 學校生活에 再婚한 父母와 同居하는 이른바 再婚家庭兒는 友人關係에서 5%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正常家庭兒童보다 偏親家庭兒童이 學校生活에 더 영향을 받으며 再

<표-1> 정상가정아와 부이별·모이별아의 일상 생활 영역별 비교

문제영역	구분		이혼가정아						정상가정아		부이별		정상가정아	
	정상가정아		부이별		모이별		계		부이별		모이별		이혼계	
	M	SD	M	SD	M	SD	M	SD	t	t	t	t		
가정생활	2.3	1.5	2.4	1.5	2.2	1.5	2.3	1.4	0.29	0.29	0.48	0.58		
정서문제	3.5	2.2	3.4	1.9	2.8	2.5	3.1	2.2	0.28	1.20	0.10	0.65		
학교생활	1.9	1.3	2.9	1.3	2.7	1.2	2.8	1.2	2.13*	1.96*	0.64	1.97*		
우인관계	2.1	1.6	2.8	1.8	2.3	1.7	2.5	1.8	1.52	0.70	1.22	0.66		
기타생활	0.9	1.0	1.3	1.3	0.8	1.1	1.1	1.3	1.41	0.52	1.36	0.53		
총	10.7	5.3	12.4	6.3	10.0	5.8	11.3	6.4	1.26	0.50	1.25	0.71		
N	77		38		22		60							

\* P<.05

<표-2> 정상가정아와 편친·재혼가정아의 일상 생활 영역 비교

문제영역	구분		이혼가정아				정상가정아		편친	
	정상가정아		편친		재혼		편친		재혼	
	M	SD	M	SD	M	SD	t	t	t	
가정생활	2.3	1.5	2.4	1.4	2.0	1.5	0.45	0.71	0.96	
정서문제	3.5	2.2	3.3	2.0	2.9	2.5	0.34	0.97	0.74	
학교생활	1.9	1.3	3.0	1.2	2.6	1.3	2.12*	1.85	0.45	
우인관계	2.1	1.6	2.2	1.6	3.0	2.2	0.34	1.98*	1.35	
기타생활	0.9	1.0	1.1	1.3	1.0	1.2	0.89	0.18	0.38	
총	10.7	5.3	11.3	5.8	11.2	7.2	0.67	0.35	0.08	
N	77		44		16					

\* P<.05

<표-3> 부이별아와 모이별아의 성별에 따른 일상생활 영역 비교

구분 성별	정상가정아					이혼가정아														
						부이별아					모이별아					전체				
	남		여		t	남		여		t	남		여		t	남		여		t
문제 영역	M	SD	M	SD	t	M	SD	M	SD	t	M	SD	M	SD	t	M	SD	M	SD	t
가정생활	2.5	1.4	2.1	1.5	0.94	2.2	1.5	2.6	1.4	0.75	1.7	1.3	2.6	1.6	1.49	2.0	1.4	2.6	1.5	1.11
정서문제	3.2	2.0	3.7	2.4	0.90	3.3	2.0	3.5	1.8	0.67	2.3	2.1	3.4	2.9	2.02*	2.8	2.0	3.5	2.3	0.82
학교생활	1.8	1.5	1.9	1.0	0.54	2.3	1.3	3.5	1.2	2.12*	2.5	1.2	3.0	1.3	0.69	2.5	1.3	3.3	1.2	1.47
우인관계	1.9	1.6	2.2	1.6	0.96	2.1	1.8	3.1	1.6	1.98*	1.3	1.2	2.7	1.9	2.15*	1.8	1.7	2.9	1.7	1.98*
기타생활	1.1	1.2	0.8	0.8	1.08	1.0	1.0	1.6	1.5	1.32	1.0	1.4	0.6	0.5	0.80	1.0	1.2	1.2	1.3	0.54
총 점	10.4	5.8	10.8	4.8	0.33	10.6	6.4	13.7	6.0	1.58	8.3	4.3	11.7	6.7	1.44	9.5	5.3	13.2	6.3	1.58
N	35		42			20		18			11		11			31		29		

\* P < .05

<표-4> 편친과 재혼가정아의 성별에 따른 일상생활 영역 비교

구분 성별	정상가정아					이혼가정아									
						편친					재혼				
	남		여		t	남		여		t	남		여		t
문제 영역	M	SD	M	SD	t	M	SD	M	SD	t	M	SD	M	SD	t
가정생활	2.5	1.4	2.1	1.5	0.94	2.2	1.4	2.7	1.4	1.25	1.6	1.5	2.3	1.6	0.97
정서문제	3.2	2.0	3.7	2.4	0.90	3.0	1.9	3.7	2.2	1.08	2.4	2.7	3.2	2.4	0.62
학교생활	1.8	1.5	1.9	1.0	0.54	2.5	1.2	3.5	1.2	1.98*	2.5	1.5	2.8	1.2	0.78
우인관계	1.9	1.6	2.2	1.6	0.96	1.8	1.5	2.7	1.7	2.03*	2.0	2.4	3.6	1.8	1.49
기타생활	1.1	1.2	0.8	0.8	1.08	1.1	1.2	1.2	1.4	0.30	0.7	1.1	1.2	1.2	0.87
총 점	10.4	5.8	10.8	4.8	0.33	10.0	5.0	14.0	6.4	1.97*	8.9	8.2	13.0	6.1	1.16
N	35		42			24		20			7		9		

\* P < .05

婚家庭兒童은 親友關係에 더 影響을 받는데 이는 前述한 McCord(1962)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아울러 性別에 따라 미치는 影響으로는 <표 3>에서와 같이 正常家庭兒童는 性別에 따른 選別的인 影響을 미치지 않는 반면, 離婚家庭兒童는 友人關係에서 男兒와 女兒간의 5% 수준의 有意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女兒가 더 影響을 받는다고 해석되어진다.

이 중에서도 父離別의 女兒가 男兒보다 學校生活과 友人關係에서, 母離別의 女兒는 情緒的問題와 友人關係에서 각각 더 影響을 받

는다.

偏親家庭兒童도 역시 學校生活과 友人關係에서 女兒가 더 深한 影響을 받으며, 再婚家庭兒童는 性別에 따라 影響을 달리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표 4>.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父母의 離婚은 子女의 學校生活과 友人關係에 影響을 미치며 男兒보다는 女兒가 더 深각한 影響을 받는다고 확인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現行民法이 離婚後 親權에 관한 사항을 父에게 우선함으로써 母는 子女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는 수가 많으며, 이



〈표-5〉 이별시기가 부이별·모이별아에 미치는 일상생활 영역 비교

구분 문제영역	이별시기					취학 전					취학 후				
	부이별		모이별			부이별		모이별			계				
	M	SD	M	SD	t	M	SD	M	SD	t	M	SD	M	SD	t
가정생활	2.5	1.7	2.7	1.6	0.22	2.1	1.1	1.8	1.3	0.63	2.3	1.7	1.9	1.3	0.72
정서문제	3.6	1.8	2.7	2.9	1.41	3.4	2.0	3.1	2.3	0.67	3.3	2.4	3.2	2.1	0.81
학교생활	3.2	1.2	2.8	1.6	0.37	2.6	1.4	2.5	1.0	0.26	2.9	1.3	2.5	1.2	0.41
우인관계	2.7	1.7	2.4	2.1	0.42	2.9	2.0	2.2	1.5	1.01	2.6	1.8	2.3	2.0	0.52
기타생활	1.4	1.4	0.7	0.5	1.62	1.0	1.3	0.9	1.3	0.16	1.2	1.2	0.9	1.2	0.37
총점	13.7	6.2	10.3	6.8	0.93	12.1	6.6	9.8	5.2	0.80	12.1	6.7	10.7	6.4	0.48
N	23		9			15		13			32		28		

〈표-6〉 이별시기가 편친·재혼가정아에 미치는 일상생활 영역 비교

구분 문제영역	이별시기					취학 전					취학 후				
	편친		재혼			편친		재혼			계				
	M	SD	M	SD	t	M	SD	M	SD	t	M	SD	M	SD	t
가정생활	2.6	1.6	2.4	1.7	0.37	2.2	1.1	1.6	1.4	1.06					
정서문제	3.4	2.0	3.0	2.8	0.46	3.3	2.0	2.8	2.3	1.16					
학교생활	3.2	1.3	2.6	1.3	0.66	2.6	1.1	2.7	1.4	0.25					
우인관계	2.2	1.6	3.1	2.1	1.28	2.2	1.6	2.6	2.3	0.62					
기타생활	1.3	1.2	1.0	1.3	0.57	1.0	1.3	0.9	1.1	0.16					
총점	13.0	6.2	11.9	7.2	0.41	10.8	5.4	10.5	7.5	0.56					
N	24		8			20		8							

는 곧女兒에게는 同一視의 對象喪失을 초래하게 되고 心身の 發達과 生活上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할 수 있다.

父母와의 離別時期가 子女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子女의 就學前 離別이 就學後 離別보다 더 높은 平均을 〈표 5~6〉에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父母와의 離別이 兒童初期에 일어날수록 더 영향을 받는다고 풀이 되어지며, 이것은 어릴때일수록 教育的 영향력이 크다는 일반적인 개념과 일치한다.

다음은 正常家庭兒와 離婚家庭兒가 42個의 日常生活 問項中 5%수준의 有意한 差異를 보임으로써 심각하게 여기는 問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7).

이상의 結果를 종합해 볼 때 全體 生活問題에 있어서 正常家庭兒는 情緒問題, 離婚家庭

兒는 學校生活과 友人關係가 生活上 問題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흥미있는 差異를 보여 주었다.

### V. 結論 및 提言

離婚家庭兒童의 日常生活問題를 몇가지 조건에 따라 고찰하여 離婚으로 인한 日常生活의 영향을 밝혀내고, 各 研究問題들의 結果를 중심으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父母의 離婚은 子女의 日常生活에 部分的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學校生活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性別에 따른 영향으로는 離婚家庭의 女兒가 男兒보다 심각하며 그 중에서도 友人關係가 더 심각하다.

(2) 父離別과 母離別이 모두 男兒보다는 女

<표-7>

정상가정아와 이혼가정아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항 비교

(但, P<0.5이상임)

영역	구분 문항	정상 가정아	이혼가정아										
			부이별				모이별						
			편친		재혼		편친		재혼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가정생활	부모와 이별후 더 불행하다. 우리집은 우울하다. 부모의 과잉기대가 불만이다. 형제간에 잘 싸운다. 부모의 이혼이 내 장래에 걱정이다. 부모의 거부적 태도가 불만이다.	○	○	○	○			○	○	○	○		
정서문제	건강에 자신이 없다. 나는 화를 잘 낸다. 매사에 자신이 부족하다. 부모가 나를 버릴까봐 불안하다. 일에 빨리 싫증이 난다.	○	○	○	○		○		○				○
학교생활	학교에 다니기 싫다. 담임에게 칭찬을 초조히 바란다. 학교에서 외롭다.		○		○	○	○		○	○			○
우인관계	다른 친구가 더 행복해 보여 부럽다. 친구와 깊게 사귀지 못할 것 같다. 친구가 나를 배신할까 불안하다. 마음에 안드는 친구를 공격한다.		○		○		○		○				○
기타생활	자기만 위해서 모든 행동을 한다. 불행한 이웃들끼리 협조를 안한다.	○	○		○		○		○				○

兒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강조하고 있으며, 父離別한 女兒가 학교생활과 우인관계에서, 母離別한 女兒는 정서적 문제와 우인관계에서 더 영향을 받는다. 반면 父離別이나 母離別이냐에 따른 選別的인 영향은 주지 않는다고 밝혀졌다.

(3) 正常家庭兒보다 偏親家庭兒는 학교생활에서 再婚家庭兒는 우인관계에 각각 크게 영향을 받으며, 女兒가 더 심각하다. 이혼후 부모가 獨身으로 있느냐, 再婚하느냐에 따른 選別的인 영향은 큰 差異가 없다.

(4) 父母와의 離別時期가 子女生活에 미치는 영향은 父離別, 母離別, 偏親, 再婚家庭의

子女中 就學前에 父母와의 離別은 就學後 離別보다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서 본 연구의 미숙한 점을 밝혀두며 이방면의 연구가 다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혼가정의 子女를 보다 완전히 이해하기 위한 추후 연구에 부치는 提言은 다음과 같다.

① 離婚家庭兒의 표집을 擴大하고, 이별시기, 이별기간, 자녀의 연령에 따르는 일상생활을 性別로 분류하여 究明하며

② 偏親의 양육방법과 태도에 따라서, 자녀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繼父·繼母의 有無와 친밀감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究明하는 것이 필요하며

③ 이러한 사실들은 여러번의 면담과 질문지를 병행시켜 심리적인 변화를 고려한 문제들을 究明해 낼 수 있는 다른 방향의 연구도 필요하다.

④ 앞으로 이혼율의 증가를 감안해서 자녀들에게 이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父母가 이혼한 후에 子女들에게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가르치는 프로그램 개발이 관계분야에서 더욱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1. 「가정상담보도」 10호, 한국의 이혼율연구, 1979. 9. 15.
2. 김주수, 「친족·상속법」, 서울:법문사, 1980 pp. 248~250.
3. 서봉인, 자녀에 대한 부친의 영향 「李義喆博士華甲紀念論叢」, 서울:공신문화사, 1973, p. 45.
4. 이태영, 「한국이혼연구」, 이태출판부, 1969. pp. 244~246.
5. 장병립, 「아동심리학」, 서울:법문사, 1965, pp. 295~297.
6. 조대경역, 「정신분석학」, 서울: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77, p. 54.
7. 한봉희, 이혼후의 자에 대한 친권문제, 「사법행정」, 한국사법행정학회간 10월호, 1977, pp. 116~125.
8. 宮井忠夫, 서독일 가족법의 개정에 관하여, 「ジュリスト」, 일본동경:유비자, 1977, 6. 1: No. 640. pp. 127~135.
9. 服部廣子·久米稔 共譯, 「離婚·別居の家庭と子典」 일본동경:가정교육사, 1972, pp. 211~232.
10. 我妻 榮, 「親族法」, 일본동경:유비자, 1961 pp. 136~137.
11. 稻本洋之助譯, 「フテンス民法典」, 일본동경, 法曹會, 1978, pp. 149~150.
12. 池川清, 「母子福祉」, 일본생명계생회, 1961, pp. 279~286.
13. Biller H. B., *Father absence, maternal encouragement and sex role development in Kindergarten-age boys*, *Child Developm.* 1969, 40, pp. 539~546.
14. Bowlby., *Child care and the Growth of love*, Harmonds worth: Penguin Book Inc., 1965, p. 11~28.
15. Clark H., *The low of Domestic Relation in the united states* ST. Paul Minn. west Publishing, CO., 1968, pp 576~577.
16. Erikson E.K., *Child and Society*, N.Y.: Norton, 1950, p. 249.
17. Francke L.B. et al 「The Children of Divorce,」 *Newsweek* 1980. 2, 11, pp. 50~55.
18. George Levinger & Moles O. C., *Divorce and separation*, N.Y.: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79, pp. 273~306.
19. Hunt M. & Hunt B., *The Divorce Experce Experience*, N.Y.: McGraw-Hill Book Company, 1977, pp. 168~190.
20. McCord J., McCord W. & Thurber E., 「Some effects of paternal absence on male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62, 64, pp. 361~369.
21. Mussen P.H., Conger J. & Kagan J.,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Y.: Harper & Row, 1969, p. 367.
22. Neubauer P. B., *The One-Parent Child and his Oedipal development*, *Psychoanal study of the child*, 1960, 15, pp. 286~309.
23. Saatrock J. W., 「Relation of type and onset father absence to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1972, 43, pp. 455~469.
24. Spitz R.A. & wolf K., 「Anacitic Depression」 *Psychoanal study of the child*, 1946, 2, PP. 313~342.
25. yarrow L.J., 「Maternal Deprivation: toward an empirical and Conceptual re-evaluation,」 *Psychol. Bull.* 1961, 58, pp. 459~490.

▣ Abstract

## A Study on the Life-Problems of Divorcee's Children

*Hwang, Ok-Ja*

This study aims to find out and analyze the Various Problems of children of divorcee's and Compare them with that of the children of married parents.

The subjects used for this study were 3,975 4~6 graders aged 9~13 enrolled in seven different Primary Schools located in seoul and Jeonju.

To begin with, everybody in seven Classed were requested to respond to a questionnaire in order to Select the Children of divorcee's.

When 60 children were selected, each Child was interviewed as well as asked to check questionnaire Concerning their daily life problems and feelings about them.

When the data were analyze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Children lives were affected by their parental divorce in various ways, but particularly so in their school lives. However, boys seemed to be affected less than the girls.

2) Either Separated from father or mother, generally the girls seemed to suffer more than the boys.

Especially the girls separated from fathers were affected in school life and peer-relationships and the girls Separated from mother were affected in emotional problems and peer-relationships

3) Children of single parents seemed to be affected more in school lives, whereas th, children of remarried Parents Seemed to be affected in peer-problems. Again, the girls were more affected than boys.

4) Children whose parents were divorced when they were still in pre-school age seemed to suffer more than than those in the school age.